

EMI/EMC 특집을 내면서



김 세 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응용물리전자연구부 선임연구원)

요즈음 우리 주변의 대기오염·수질오염과 같은 환경문제가 심각히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공업화가 진척됨에 따른 부산물인 일종의 산업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탈 공업화를 이루어 정보화시대로 들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부단한 노력과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화시대에 들어 갈수록 수많은 정보교환선로, 기기등에서 복사된 전자파에 의한 우리 주변의 전자파 환경이 매우 나빠질 것이고, 정보기기들의 집적화, 자동화, 고속화, 디지털화가 진척됨에 따른 외부 전자파에 의한 간섭위험에 더욱 쉽게 노출될 것이다.

이러한 때에 전자파의 간섭(EMI)문제의 실태와 이에 대처해 가는 방안(EMC)에 대한 소개를 본 특집을 통하여 학회 회원들에게 할 수 있도록 꾸며보았다.

본 EMI/EMC 특집이 회원여러분께 유익한 정보와 지식이 되기를 바라며, 바쁘신 중에서도 좋은 글을 써 주신 필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1989年 9月